



보도	배포시	배포	2024.9.19.(목)				
담당부서	금융시장안정국 금융시장총괄팀	책임자	국 장	이 진	(02-3145-8170)		
		담당자	부국장	김정훈	(02-3145-8180)		

금감원, 금융상황 점검회의 개최

- □ 금융감독원은 美 연준의 정책금리 50bp 인하 단행 직후인 9.19일(목) 오전 이복현 원장 주재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였음
- □ 이복현 원장은 과거 미국의 금리인하 사례(7회)를 봤을 때 1년 이내에 미국 경기가 연착륙한 사례(4회)도 있었으나, 때로는 경기침체(3회)로 이어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기도 했다는 점에서

향후 통화정책 전환 과정에서 금융시장을 면밀히 살피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당부하였음

과거 미 연준의 첫 금리인하 시 1년 이내 경기침체 사례

첫 인하 시기	′87.11.	'89.6.	'95.7.	'98.9.	′01.1.	′07.9.	′19.7.
첫 인하폭(bp)	50	25	25	25	100	50	25
경기침체 여부	N	N	N	N	Υ	Υ	Υ

- ① 국가간 통화정책 차별화 과정에서 경기지표와 시장기대와의 차이 등에 따라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엔 캐리 추가청산 등 급격한 자금이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면밀한 모니터링 및 안정적인 외환 건전성 유지 지도
- ② 2단계 스트레스 DSR 및 은행권 자율 심사기준 강화 등 가계부채 관리대책의 효과를 세밀히 점검하여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고, 필요 시 상황별 거시건전성 관리수단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

- ③ PF사업장에 대한 2차 사업성평가를 11월까지 엄정하게 실시하고 PF대출의 부실 이연 또는 은닉이 없도록 철저히 사후관리하되, 정상 사업장이나 정리·재구조화 등을 통해 사업성이 회복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권의 적극적인 자금지원을 유도
- ④ 연체율 상승 등 자산건전성 악화 우려가 있는 일부 제2금융권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부실자산 정리 및 자본확충 등을 지도하고, 부진한 금융회사는 경영실태평가 및 현장검사 등을 통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
- □ 마지막으로 이복현 원장은 금리인하기가 시작되는 현 시점에서 우리 경제가 도약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가 생산적 분야로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감독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주문하였음

[☞]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http://www.fss.or.kr)